

권리 위에 잠자는 학생들이여

깨어나라!



우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칼을 강제로 잘리기도 합니다.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몽둥이에 맞아도, 몸을 땅바닥에 굴러도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하기도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우리의 권리는 침해되어 왔습니다. 학교는 자의적으로 우리를 억압하기 일쑤이고 학생회는 그들의 들러리일 뿐입니다.

98년 7월, 한 전주 사고등학교 학생은 청와대에 학교에 관한 민원을 올렸다가 징계지시와 함께 사과문까지 강제로 써야 했습니다.

2005년 7월, 두발자유는 기본권임을 인권위가 천명했지만 아랑곳 않는 곳도 있습니다. 토론회가 열리긴 했으나 학생의견은 무시된 학교도 있습니다.

이제 2005년 8월 6일, ^{집회} 이곳 전주에서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해봅시다. 청소년행동의 날을 다시 실현해봅시다.

(<http://cafe.daum.net/jbhumanrights>

더 관심 있는 분은 여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이고 학생이기 이전에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도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모두 함께 우리의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불법과 자의, 불의에 맞서 행동합시다!



우리가 잃을 것은 족쇄뿐입니다.
그리고 얻을 것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입니다.

너는 이미 인수분해 되어 있다!



(이 그림의 저작권은 구3CF의 '보노'님께 있습니다.
허락 없이 사용하여 죄송합니다.)

언제쯤에야 다시 전개할 겁니까?

청소년헌장(문화관광부, 1998. 10. 20)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주거·의료·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출신·성별·학력·연령·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토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 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이 물로 보이는가?

프롬의 아래와 같은 말, 이상과 현실의 부조화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한국이라고 생각지 않는가?

“자발적인 감정의 억압, 나아가서는 순수한 개성의 발달의 억압은 아주 빠른 시기에, 사실상 아이들의 초기 교육과 더불어 시작된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의 참된 목표가 아이들의 내적인 독립과 개성, 또한 성장과 완전성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면, 교육은 어디까지나 자발성의 억압을 이끌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와 같은 교육에 의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속박도 실제로는 성장과 발전을 지탱하는 과도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에 있어서는 교육의 결과 위에서 주어진 감정이나 사상이나 소망 때문에 자발성이 배제되어, 자연의 정신적 활동이 폐기되는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따라 다니는 수석어는 “미성숙”이다. 미성숙은 통제의 근거가 된다. 체벌, 강제 자율학습, 두발 제한, 모든 것은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입시 문화 속에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보 양보하여 이러한 미성년자의 미성숙에 대한 전제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문해야 한다. 과연 한국 교육은 미성숙을 극복하게 해주는가?

미성년자의 미성숙은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것은 경험이다. 그러나 학교의 억압은 미성년자에게 경험의 기회를 차단하는 구조이다. 야간 자율학습은 학생들을 공부에 매달리게 만들며, 밤 동안에 감히 학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공식적으로는, 학생들은 학교 밖 같은 것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 우리는 자유의 기회, 토론의 기회조차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는데도 그러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억압받고 있다. 민주시민의 자질 양성이라는 표어를 달고 있는 교육의 신의가 심히 의심스러운 현실이다. 그러다가 대학교가 되면 학생들은 갑작스레 자기 일에 책임질 것을 요구받는다. 그렇게 해놓고서 대학교에서 방종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는, 정말 교육받고 싶다.

순응주의와 복종이 민주시민의 자질이라고 한다면 현 학교 교육은 대단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오히려 우리는 비판과 토론을 통한 타협 능력이 민주시민의 자질이라고 배우지 않았는가? 학교는 스스로 교과서를 부정하는 곳이다. 그래, 좋다. 세상은 어차피 모순 덩어리니까는. 그러나 그러한 모순을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순응주의에 스스로도 쫓겨 있는 곳이 또한 학교이다.

만일 우리가 학교를 타하면 학교는 변명할 것이다. 현 사회 구조가 그렇지 않으냐고. 그러나 인그리진 사회 구조 속에서도 그에 불복종한, 혹은 그 틈새에서 정의를 실천한 선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독립 운동, 민주화 운동은 모두 기껏말에 불과한가? 환상에 불과한가? 개인의 노력으로 구조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교사의 노력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삶이 바뀔 것인가. 한 학교 전체가 바뀔으로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삶이 바뀔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비교적 경직된 교육부의 정책을 떠나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 먼저 선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자립형 사립 사범시행 고등학교, 대안 고등학교 등에서부터 우리들은 빛나야 한다. 그곳들은 자유의 거점이 될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대학교 많이 보낼 책임감이 아니라, 진정한 명문 고등학교의 기준은 명문대 끊어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학생을 많이 길러낼 수 있는 분위기인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장한다. 형식뿐인 건의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해달라. 야간 자율학습과 두발, 교복에 관해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달라.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 학생들이여, 적극적으로 요구하라. 우리들은 중을 울려야 한다. 어제와 같은 새벽이 걸모습만 슬쩍 화장하고 나타나는 일을 두고 봐서는 안 된다. 흔들여 새울 노래를 부르자. 우리는 살아있다!

시(詩)를 쓰되 좀스럽게 쓰지 말고 또 이렇게 쓰랴다.

내 이찌나 자프 끝이 힘찬 피로 학생지도부에 끌리기
회초리 봉사 반성문 기합 — 징계를 먹은 지도 하도 오래라 삭신이 난질근질
방정맞은 조동아리 손복탱이 오물오물 수물수물
뒤편 자꾸 쓰고 싶어 견딘 수가 없으니, 예라 모르겠다
생활기록부에 확확 분이 나게 감점 맞을 때는 맞더라도
내 별별 이상한 교사이야길 하나 쓰깃나.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가입 후에도 아동학대는 낮고
임시일률 권위주의 처처에 그득하나
북서유럽에도 시흠은 있었으니
아마도 현군양상(賢君良相)인들 교육 비릇이야
차마 이찌힐 수 있겠느냐

군사 교육 전통이라 학교 한복판에 다섯 선생이 슬쩍 살았겠다.
스포츠머리 다닥 디발머리 다닥 교복이 다닥다닥 그위에 붙쭉
적 쫓고 싶은 대로 솟구쳐 올라 뼈까민씩 으러으러 허연 시멘트 학교 건물에
밤낮으로 성적표 으러렁 문닫는 소리 칠킹 뺨때리는 소리가 칠쭉
예가 바로 야사(野恣), 보충수업(裸蟲囚業),
용의복장(俑擬伏獎), 체벌(替伐),
성적지상(猩賊之上)이라 이름하는, 간뎡이 부어 남산 만하고 목진기기가
동덕배꼽 같은 진하훈포 오교사(五敎師)의 소굴이렸다.

사람마다 맷속이 오장육부로 되었으되
이놈들의 배 안에는 큰 황소불알 만한 임시문화보 권위수의보가 걸붙어 오장판보,
본시 한 왕초에게 선생질을 배웠으나 재조는 각각이라
밤낮없이 일률주입세뇌전민 일삼으니 그 재조 또한 신기(神技)에 이르렀겠다.

하루는 나섯놈이 모여
일제 강점 이따때 우리 서로 피로써 맹세코 선생질을 개업한 뒤
날이날로 느느니 기술이요 쌓으느니 곧빈 학생이라,
그건에 일취월장 묘기(妙技)를
어디 한번 서로 겨름이 어떠한가

이렇게 뜻을 모아 교(敎)씨 한사 크게 씨 실어놓고 재수시합을 벌이는데
때는 양춘가절(陽春佳節)이라 날씨는 화창, 바람은 건 듯, 구름은 둥실
지마다 교편 하나씩 비껴들고 끈아잡고 행여 길세라
나투이 내달아 비전(泌傳)의 신기(神技)를 사랑해 왔느냐.